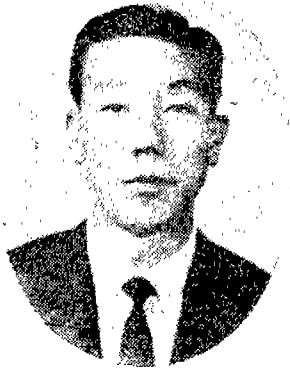


우리 나라 「에너지」 政策과



I. 序 言

昨年 10月の 第4次 中東戰爭을 契機로 하여 石油危機가 顯在化 됨으로서 에너지의 重要性이 再認識 되기 에 이르렀다.

에너지 資源 特別 石油의 偏在에 基因하는 需給의 逼迫, 資源의 有限性에 對한 世界의 認識高揚과 資源 保有國의 發言權 強化 그리고 美國을 비롯한 世界各國의 에너지 需要 急増등은 급기야 汎世界的인 에너지 危機를 물고 왔다.

石油供給의 모든 카드가 産油國의 손아귀에 쥐여져 있으며 에너지 供給의 基調가 産油國의 政策行動에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여실히 證明 하였다.

한편 美國, 유럽 諸國, 日本等地의 에너지 多消費國에서는 石油, 電力 等の 消費規制를 實施함으로써 情勢를 克服하는 外에는 다른 有効한 手段을 가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石油供給의 不足은 그대로 에너지 供給의 強制的인 收縮에로 連結된다는 事實은 消費國에 對하여 에너지 危機의 長期化를 새로운 認識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消費國에 있어서 에너지 戰略이라함은 端的으로 말 하면 各國이 그 나라의 經濟에 있어서의 石油依存의 體質을 어떠한 形態로 轉換 시키는가 하는 問題와 關係가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80年代初 100億弗 輸出과 1人當 1,000弗 所得을 指向하는 重化學工業政策과 아울러 急變하는 世界에너지 資源의 緊迫性에 對備키 위해서 새로운 長期 에너지 政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以下 지난 5月 確定發表한 長期 에너지 綜合對策의 內容을 간추려 紹介하러 한다.

II. 우리나라의 에너지 需給動向

韓國의 에너지 需要는 60年代에 들어와 兩次に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急速한 産業化 過

<目 次>

1. 序 言
2. 우리나라의 에너지需給動向
3. 우리나라의 에너지政策의 重點目標
4. 部門別 施策
 - 가. 石炭部門
 - 나. 石油部門
 - 다. 電力部門
 - 라. 에너지 消費節約
5. 앞으로의 展望

그 展 望

商 工 部 動 力 開 發 局 長
韓 正 錫

程을 통하여 工業構造가 高度化되고 國民生活 水準이 飛躍的으로 向上되어감에 따라 에너지消費는 量的인 面에서 急激히 增加하였을 뿐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크나큰 變化를 가져왔다.

即 總에너지 需要가 1955~61年間에는 年平均 增加率이 2.9%에 不遇하였으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인 1962~66年間에는 6.1%, 第2次 5個年 計劃期間인 1967~71年間에 있어서는 에너지 需要增加率의

幅이 더욱 擴大되어 年平均 10.4%가 되었으며 이러한 現象은 持續되어 16.9%의 GNP 成長을 이룩한 1973年度에는 對前年比 에너지 增加率이 무려 16.0%로 記錄되고 있다.

〈表 1〉 에너지源別 期間中 平均增加率

單位 : %

源 別	1次 期間	2次 期間	3次 期間	4次 期間
石 炭	14.1	0.4	9.5	12.3
石 油	22.0	38.4	12.6	10.8
水力 및 原子力	8.6	6.0	14.2	44.6
薪炭除外에너지	16.7	15.5	11.6	12.5
薪 炭	△4.1	△2.3	△4.5	△4.3
總 에 너 지	6.1	10.4	9.2	11.3

이른 다시 에너지의 物量과 源別 構成面에서 보면 1962년의 1次 에너지 總規模가 無煙炭 換算 20,212千 ㄱ에서 1973년에는 50,084千ㄱ으로 지난 10年間에 2倍 以上으로 늘어났다.

또한 62년의 石炭이 占하는 比率이 36.9%, 石油 9.5% 水力 1.7%, 薪炭 51.9%, 이었던것이 73년에는 石炭 31.0%, 石油 53.3%, 水力 1.3%, 薪炭 14.4%로 그 構成이 크게 變動되어 石炭 및 薪炭의 相對的인 縮少와 아울러 石油에너지의 急速한 增加를 가져왔다.

한편 1980年代 初에 1人當 GNP 1,000ㄱ, 輸出 100 億ㄱ 目標을 뒷받침 하는 重化學工業化의 推進으로 에너지의 需要는 앞으로도 繼續 늘어날 것으로 豫測되

〈表 2〉

總 에너지 需要 展望

單位 : 千ㄱ

源 別	1 9 7 3		1 9 7 4		1 9 7 6		1 9 8 1	
	數 量	構 成 費	數 量	構 成 費	數 量	構 成 費	數 量	構 成 費
石 炭	15,537	31.0	15,863	29.6	18,967	29.1	33,774	30.3
石 油	26,718	53.3	30,075	56.1	38,579	59.1	64,332	57.8
水力 및 原子力 (原 子 力)	629	1.3	740	1.4	1,259 (340)	1.9 (0.5)	7,954 (6,594)	7.2 (6.0)
薪炭除外에너지	42,884	85.6	46,678	87.1	58,805	90.1	106,060	95.3
薪 炭	7,200	14.4	6,961	12.9	6,451	9.9	5,243	4.7
總 에 너 지	50,084	100.0	53,639	100.0	65,256	100.0	111,303	100.0

며 이른 物量으로 推算해보면 1981年度에는 111,303千 ㄱ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Ⅲ.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의 重點目標

이와같은 莫大한 에너지의 安定的인 供給을 위한 主

要政策手段으로는

첫째 : 石炭 및 水力을 포함한 國內 賦存에너지 資源을 最大限 開發 活用토록해서 需要增加에 따른 에너지의 安定供給과 에너지 輸入 依存度를 緩和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確認된 石炭 埋藏量은 14.5億%이며 今年度의 石炭 生産量 1,500萬%을 81년에 가서는 2,400萬 噸 水準으로 끌어올릴 計劃이며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輸送能力의 擴充補強과 探炭事業의 早期施行 等 諸般 增産支援體制를 確立할 것이다.

둘째 : 火力 特別 油類專燒 中心의 高코스트 發電體制를 止揚하고 國內 可用電源인 水力의 比重을 最大限 提高 시키기 위하여 現在의 12個水力發電所 621千Kw의 容量을 81년까지 揚水發電을 포함한 8個의 1,460千 Kw에 해당하는 水力發電所를 더 建設할 計劃이다.

세째 : 에너지 供給源의 多様화와 電力供給의 信賴度 提高 및 燃料費의 低廉을 長期的인 經濟性에 立脚하여 現在 建設中인 「吉里原子力發電所」를 包含하여 81년까지 4個 86년까지는 5個의 原子力發電所를 追加로 더 建設함으로써 總發電施設容量 16,416千Kw中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比重은 40.2%가 될 것이다.

넷째 : 이와같이 國內 에너지 資源을 最大限 開發活用 하고도 나머지 需給上의 不足分은 石油로 充當하는 政策을 堅持해 나갈것이며 現在의 日間 原油處理 能力 435千BbL의 精油施設을 81년에 가서는 1,054千BbL로 擴張하여 各種 石油類의 需要를 安定的으로 供給할 計劃이다.

아울러 石油事業法에 依據하여 政府의 石油類 需給 調節機能을 強化함으로써 激動하는 國際石油需給 狀況 變化에 効果적으로 對處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 에너지 利用의 科學化와 消費節約의 生活化를 뒷받침하는 熱管理法의 効率的인 運用과 強力한 消費節約 政策을 펴나감으로써 에너지의 利用이나 消費面에 있어서 非科學的 要素나 浪費性을 最大限 排除해 나갈 것이다.

IV. 部門別 施策

1. 石炭部門

(1) 基本 施策

(가) 石炭生産의 極大化

國內 賦存에너지 資源을 最大限 開發活用하기 爲한

여 生産基盤 擴充을 重點 支援함으로써 石炭生産量을 1973年 13,571千%에서 1981年 24,000千%으로 極大化 한다.

(나) 輸送能力의 擴充

石炭增産에 따른 輸送需要 擴充에 對處하여 産業鐵道 및 港灣施設 等 社會間接部門施設의 擴充과 近代化를 圖謀한다.

(다) 探炭事業의 早期施行과 支援擴大

石炭生産의 極大化 造成으로서 炭鑛開發을 促進하기 爲한 未探炭區域에 對한 探炭事業을 早期施行하고 資金支援을 集中化 한다.

(라) 石炭産業에 對한 支援體制確立

國家의인 次元에서의 石炭鑛業의 生産擴充 基盤造成을 爲한 設備投資의 適期支援, 貯炭資金의 基金化, 開發資金의 運營效率化 및 稅制面에서의 「인센티브」 賦與 等 制度的인 支援을 強化한다.

(2) 細部 對策

(가) 探炭의 支援擴大

未調査 鑛區에 對한 精密地質調査를 早期(1976년까지)에 完了하고 坑道掘進과 併行하여 試鑛探炭 事業을 重點支援함으로써 炭層 發達狀態 確認 및 長期開發體制 確立을 効果적으로 이룩한다.

(나) 生産基盤의 擴充

① 深部開發體制的 確立 및 施設改善

水平坑道에 依한 探炭의 限界性에 따라 堅坑 및 斜坑 建設을 年次的으로 擴大함으로써 深開發體制를 確立하고 資金 및 技術의 積極支援으로 炭鑛施設의 近代化를 期한다.

② 鑛區의 統合調整 및 坑道構造改善

作業體制的 合理化와 投資效率 增進을 圖謀하기 爲한 長期增産效果가 큰 群少鑛區은 統合 經濟單位化 하고 坑道骨格 構造의 改善 및 運搬體系의 機械化를 圖謀하여 量産體制를 確立한다.

③ 生産技術向上을 爲한 研究開發

炭層賦存狀態의 復雜 深部探炭等으로 因한 M.O.S의 低下를 防止하고 謬原價高要因을 除去함으로써 生産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한 探炭技術에 關한 研究開發을 強化한다.

(다) 石油産業 綜合支援體制的 確立

① 貯炭資金의 基金化 運營

非需要期의 石炭生産을 促進하고 生産平準化에 必要

한貯炭資金을 段階적으로 造成하여 이를 回轉基金(152億圓)으로 連繫함으로써 資金支援의 安定과 適期供給을 期한다.

② 稅制上的 支援擴大

現行 稅法上的 石炭礦業에 關한 投資控除制度를 擴大하고 炭鑛用機資材의 輸入關稅을 減免하며 構築物에 對한 減價償却年限을 短縮함으로써 石炭鑛業의 自立化를 促進함과 同時에 新規開發投資를 誘導하기 爲해 稅法上的 支援幅을 擴大한다.

③ B.C油 目的稅의 期限延長

石炭開發助成資金의 主財源인 B.C油 目的稅의 稅收期限을 1979年 以後로 延長토록 推進함으로써 長期開發計劃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한다.

④ 鑛振資本造成을 위한 財政支援

融資財源 半恒久的으로 確保함과 同時에 低利子乃至 無利子 融資가 可能하도록 石炭鑛業育成資金의 產銀轉貸方式을 止揚, 앞으로는 이를 鑛業振興公社에 出資 運營토록한다.

(라) 勞動力 確保

生産目標 擴大에 따른 人力需要의 增加와 鑛産勞働者의 빈번한 離職現象에 對處하여 職務에 相應한 適正賃金水準을 維持토록 하고 鑛夫舍宅等 諸 福利厚生施設을 擴充한다.

또한 鑛山勞働者의 子女들을 爲한 獎學制度를 積極造成하는 동시에 不足한 人力의 流出을 막기 爲해서 鑛夫의 海外就業을 制限하는 한편, 保安點檢의 專門化 保安教育 強化 및 安全裝備의 確保 등으로 保安對策의 萬全을 期한다.

(마) 輸送能力의 增強

無煙炭 輸送需要의 增加에 對備하여 堤川—鴨潭, 榮州—慶州等 主要 産業線을 複線化하거나 擴充하고 貨車機關車를 增強하며 沿岸都市에 對한 海送을 擴大하기 爲하여 墨湖港의 處理能力을 擴張함과 同時에 海送所要 船腹을 確保한다.

또한 地域別 據點輸送體系를 定立하여 輸送의 圓滑化를 期하고 鐵道輸送運賃의 「풀」(pool)制 實施에 依해 需要者 輸送費負擔의 平準化를 圖謀한다.

(바) 石炭의 效率의 利用

煉炭規格調整 및 改良燃燒器 普及等에 依해 賦存資源의 消費節約을 積極 推進한다.

또한 全國石炭埋藏量의 約 40%(6億噸)에 達하는 低質炭의 活用法 熱效率向上을 爲한 研究開發을 強化하여 石炭에너지資源의 利用을 效率化한다.

2. 石油部門

(1) 基本施策

(가) 原油의 安全確保體制 確立

80年代初의 1,000弗所得 100億弗輸出實現을 뒷받침하는 德化學工業化計劃의 積極的인 推進에 따른 油類의 急激한 需要擴大 趨勢에 對備하여 이룬 特量 및 價格面에서 安定的으로 供給하는 基盤을 確立한다.

(나) 石油產業體制的 轉換

産油國의 地位強化와 流動的인 原油生産 및 輸出政策 그리고 國內 石炭類需要急增에 따른 流通體系의 不合理等 國內外 石炭産業의 急激한 興件 變化에 効果的으로 對處하기 爲하여 ① 政府의 石炭類調節機能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石炭事業法을 補充 整備하고 ② 石炭專擔機構로서의 韓國石油開發公社를 設立 運營토록 檢討 推進토록 한다.

(2) 細部對策

(가) 原油의 安定確保體制 確立

1980年代에는 一次에너지 供給에서 차지하는 石炭의 比重이 60%線에 肉迫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所要 原油의 安定的인 確保는 當面된 가장 重要한 政策課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重點施策을 講究함으로써 原炭의 安定確保體制를 確立한다.

① 産油國과의 經濟外交 強化

莫大한 所要原油의 長期 安定確保基盤을 構築하기 爲하여 對産油國과의 能動的인 經濟外交를 展開한다.

② 原油導入先의 分散

供給方式의 多樣化로 原油의 導入先을 分散함으로써 不意의 事態에 對備토록 한다.

③ 國內精油工場 建設時 産油國의 直接 投資誘致

앞으로 늘어나는 油類需要에 副應한 新規 精油工場의 建設時 그 資需要者의 選定過程에서 産油國의 投資를 積極誘致함으로써 原油의 長期安定 確保策을 亨前에 마련토록 한다.

(나) 石油產業體制的 轉換

① 政府의 石油事業 需給調節 機能 強化

現 石油事業法을 補充 整備하여 油類需給에 對한 政府의 調節機能을 制度的으로 強化하여 産油諸國에서의 供給減量과 같은 事態發生時에 對處토록 한다.

③ 流通體制的改善

油類需要急増과 함께 精油業體에서의 市場擴大努力으로 亂立되어 있는 油類流通業體를 統合整備토록 한다.

그리고 特別 近距離 大量需要地域間에는 送油管設置에 依한 製品輸送을 擴大함으로써 流通手段을 近代化하여 족주하는 輸送需要에 對備토록 한다.

③ 韓國石油開發公社(假稱) 設置運營

國內外 油田 開發參與, 原油의 購入(DD原油等) 石油의 備蓄管理, 石油製品의 販賣調整 等 綜合的인 面에서 長期的으로 石油産業開發을 위한 專擔機構로서의 石油産業開發公社를 設立 運營토록 檢討 推進한다.

(다) 原油 및 石油類備蓄의 擴大

① 備蓄水準의 段階的인 國內 油類供給體制的 構築을 위하여 1981년에는 先進國의 備蓄水準에 이르도록 現 58日分의 原油 및 製品의 備蓄能力을 77년에 105日分 그리고 81년에는 120日分으로 그 施設能力을 段階的으로 擴大하는 同時에 完貯容量도 段階的으로 增加시켜나갈 方針이다.

② 原油備蓄基地의 早期建設을 推進함으로써 輸入窓口의 一元化와 大型 Tanker利用에 따른 輸送코스트의 節減 等 附帶效果를 同時에 얻도록 한다.

3. 電力部門

(1) 基本施策

(가) 長期 需給均衡을 爲한 電源開發

電力需要增加에 對應한 長期需給均衡維持를 위해 油類專燒火力建設을 可及的 止揚하고 揚水를 包含한 水力 石炭混燒火力 및 原子力發電 中心으로 電源開發을 推進한다.

(나) 送配電設施의 劃期的 擴充

過去 發電設備建設 促進으로 相對的으로 취약성을 보인 送配電設施을 劃期的으로 建設 推進토록 하고 特別 超高壓 系統構成의 擴大로 送配電設備의 受容能力을 擴充하여 電力損失을 最大限 減少한다.

(2) 細部對策

(가) 水力(揚水包含) 및 原子力發電所 早期建設

① 水力比重의 提高

火力 中心의 高코스트 電力供給을 止揚하고 國內可用「에너지」源의 最大限 活用을 위해 多目的 水資源開發에 依한 水力發電所의 建設과 並行하여 水力(揚水包含) 發電의 比重을 提高한다.

또한 揚水發電所의 建設은 尖頭負荷에 對備한 電力供給에 安定性を 確保하고 原子力發電稼動에 따른 合理的인 電力需給體制를 갖을 것이다.

② 原子力發電所 建設의 繼續推進 發電燃料費의 低廉 및 「에너지」源의 多元化에 依한 電力供給의 信賴度 提高와 發電燃料의 貯藏, 輸送의 容易性, 長期的인 經濟性에 立脚하여 76年 1號機竣工에 이어 83년까지 9箇所의 原子力發電所 建設을 繼續 推進한다.

이에 對備해서 核燃料의 長期安定確保對策을 樹立하는 한편 國內에서의 加工 및 再處理를 위한 技術開發을 推進한다.

(나) 送配電設備의 受容能力 擴充

① 345Kv 超高壓 系統構成 擴大

電力의 地域間 需給調整策으로 發電設備의 增設과 並行하여 基幹送電設施을 345Kv 超高壓 施設로 轉換하고 從前의 地域負荷供給施設 154Kv 高壓送電을 繼續 擴張하다.

② 大都市 送配電 地下化

大都市 送配電施設은 그 建設上의 隘路 및 設備維持의 困難에 비추어 漸次 地下化를 期한다.

③ 配電電壓의 昇壓

超高壓 送配電施設과 並行한 2次 配電施設을 整備擴充하여 良質의 電力供給을 維持하도록 하고 從前의 家庭用 110V 및 動力用 220V를 各各 單相 220v 및 三相 380V로 昇壓시키는 施設投資를 漸次 擴大시킨다.

(다) 電力事業 運營體制 改善

原子力發電의 集中的 開發管理과 韓電의 電力供給事業의 安定化를 期하도록 原子力發電의 專擔機構를 別途로 設立 運營토록 한다.

(라) 安定供給 基盤確立을 위한 料金水準의 適正化
電力事業 運營基盤의 強化를 위해서 投資報酬率을 適正水準에 이르도록 料金水準을 漸次的으로 調整한다.

4. 에너지 消費節約

長期 에너지의 政策의 具顯過程에서 에너지消費節約의 問題는 所要 에너지의 生産 및 供給面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특히 國內賦存에너지源이 不足한 가운데 에너지의 消費가 急激하게 增大되고 있는 現實的 狀況下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政府는 74年初부터 熱管理法를 制定 公布하여 熱管理事業의 制度化 推進을 展開하여 왔다.

〈表 3〉

發電所建設計劃

區 分	既 存		建 設 計 劃				合 計	
	個 數	容量千kw	74 ~ 81		82 ~ 86		個 數	容量千kw
			個 數	容量千kw	個 數	容量千kw		
原 子 力	—	—	4	2,395	5	4,200	9	6,595
水 力	12	621	5	440	3	273	20	1,334
揚 水	—	—	3	1,020	1	400	4	1,420
火 力	21	3,650	7	1,863	3	1,900	31	7,413
計	33	4,271	19	5,718	12	6,773	64	16,762
廢 止	—	—	△1	△18	△3	△328	△4	△346
累 計	33	4,271	51	9,971	60	16,416	60	16,416

〈表 4〉 源別發電設備構成 單位：%

年度	74	76	81	86
水 力	13.2 (621)	12.5 (711)	20.9 (2,081)	16.8 (2,754)
原子力		10.4 (595)	24.0 (2,395)	40.2 (6,595)
火 力	86.8 (4,100)	77.1 (4,400)	55.1 (5,495)	43.0 (7,067)

註：() 內는 設備規模 (千Kw) 임

그리고 특히 73年 以來 顯在化된 石油波動으로 말미암아 所要에너지의 安定的 供給體制를 確立 받을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여 政府는 에너지消費節約을 위한 各種의 行政的 措施를 施行하였다. 즉 1973年 11月 7日 第97次 國務會議에서 主要에너지의 需要抑制을 위하여 汎國民의인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을 마련한 以來 여러가지 形態의 關聯施策을 展開하여 왔다.

이에따라 에너지消費面에서 淸快한 節約效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一連의 施策이 長期間에 걸쳐 制度的으로 推進되어질때 에너지 消費節約의 效果는 더욱 極大化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主要에너지의 安定的인 供給體制를 再整備하는데 寄與할 것이다.

여기에서 政府는 에너지消費節約을 위한 長期的 諸般 施策을 樹立한 것이다.

그 施策內容은

첫째 熱管理制度化推進에 의한 熱效率의 提高이다 熱管理制度化推進은 이미 制定된 熱管理法를 積極的으로 通用하는데 있다.

원래 熱管理法의 制定 目的은 熱使用處에 있어서 燃料 및 이를 熱源으로 하는 熱의 有效한 利用을 圖謀하

고 燃料使用 機器의 品質을 向上시킴으로써 燃料資源의 保全과 企業의 合理化를 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① 먼저 燃料多消費業體를 指定하고 該當 指定業體의 燃料使用過程에서 熱效率을 向上시킬 수 있는 各種事業을 展開하는 일이다.

現在는 石炭換算 700 屯이상의 燃料多消費業體를 對象으로 하여 推進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年次的으로 擴大 指定한 것이다.

② 다음에는 熱管理實態調査事業으로서 熱管理事業의 效率의인 推進을 위한 基礎的인 資料를 蒐集獲得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熱管理事業計劃이 科學性을 띠어야 하거 事業의 遂行은 合謀的으로 展開되어야 하기 때문이거 이를 위해서는 熱管理實態를 파악해야 한다.

③ 熱管理事業에 있어서 目標熱使用原單位의 設定과 그 遂行은 매우 重要하다.

이는 燃料費의 節減을 통한 「코스트 다운」과 生産性 向上 및 製品의 品質向上 및 그 均一化 등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期할수 있으며 長期에너지 節減目標의 達成을 위한 要諦가 되는 것이다.

④ 끝으로 熱管理診斷事業은 熱管理對象業體의 熱管理시스템을 비롯하여 熱使用施設 및 機器의 效率 그리고 熱使用原單位 내지 熱損失率등을 診斷함으로써 熱管理의 效率化를 期하는데 있다.

熱管理의 效率化는 一定한 期間에 걸쳐 安定的으로 熱管理體系上 여러가지의 事項을 「체크」하여 거기에서 나타나는 不合理性을 除去할때 비로서 可能한 것이다.

둘째, 에너지 消費節約을 生活化하는 風土를 造成해나가는 일이다.

에너지 消費節約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熱管理制度의 積極實施과 並行하여 에너지 消費者의

消費節約意識이 隨件되어야 한다.

따라서 汎國民的인 에너지 消費節約의 風土造成을 위한 消費節約運動의 展開는 에너지 消費節約 目標達成의 關鍵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 消費節約의 生活化는 에너지 消費者의 自發的인 努力과 浪費性이 過度한 消費패턴을 改善하기 위한 一連의 行政的指導가 要求된다.

V. 앞으로의 展望

지난 10年 동안 우리나라는 두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였고 이제 第3次 5個年 計劃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産業構造는 急速히 高度化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消費도 繼續 增加一路에 있으며 앞으로는 重化學工業의 重點 育成에 따라 에너지 需要는 經濟成長에 比等한 年間 10% 前後의 水準으로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를 다시 總에너지 面에서 본래 81년에 우리나라 에너지의 總 需要는 無煙炭 換算 111百萬屯이 될 것으로 推定되며 이는 昨年 消費實績 50百萬屯의 배가 넘

는 需要로서 向後 7~8年間에도 에너지 需要는 急激히 增加 할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總에너지 需要의 絶對值가 增大되는 가운데 源別에너지 供給構造도 크게 變化 될 것으로 想定된다.

即 總에너지中 石炭類의 比重은 1973年の 31.0%에서 1981년에는 30.3%로 多少 減少되는 反面에 石油類는 同 期間中 53.3%에서 57.8%의 水準으로 그 比重이 增加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水力 및 原子力에 있어서 總에너지 規模에 對한 構成費는 1973年の 1.3%에서 1981年 7.2%로 大幅 그 比重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나 있고 薪炭은 同 期間中 14.4%에서 4.7%로 그 比重이 激減될 것이다.

이와같은 에너지의 消費構造를 安定的으로 뒷받침 하기 위하여 石炭은 現 生産水準 1,500萬屯에서 81년에는 2,400萬屯으로 翻期的인 增産을 이룩함으로써 民 需用炭을 비롯한 工業用炭을 차질없이 供給할 것이며 精油施設은 目標年度인 81년에 가서 現 施設의 倍가 넘는 日産 100萬BbL의 規模로 擴張될 것이다.

또한 모든 産業의 動力源인 發電所의 總 施設은 水, 火力 및 原子力을 合하여 1,000萬Kw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